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50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음 10월 22일) 제241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강호축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북-충북-강원 '맞손'

수소경제권 구축 협약
전북도, 수소 생산
강원, 저장·운송
충북, 모빌리티 역점

대한민국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과 충북, 강원도가 손을 맞잡고 강호축 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만나 강호축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강호축 3개 도가 상호협력하자는 뜻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수소분야 상호 역량 결집, 광역적 협력사항 발굴, 기술 정보교류를 통한 선도적 역할 수행 등에 대한 포괄적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북은 수소 생산을 담당하고 강원도는 저장·운송, 충북은 모빌리티를 맡아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밸류체인 전반의 연계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강호축 연계 수소경제권 구축과 미래성장 동력 발굴에 공동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 등 광역차단체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호축이 서로 연계해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수소경제를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에너지 안보, 미래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보고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부처 간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수소시범도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범부처 수소경제 기술개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력을 확보

2019. 11. 15.(금) 장소 : 국회의원회관 7간



지난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호축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송하진 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여 수소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국내 최고의 수소융합선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도내 산·학·연·관 역량을 집중해 산업부의 '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연구' 공모, 국토부의 '수소시범도시'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까지 수소총전소 8기를 구축해 수소인프라를 확충하고,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2019~2023, 196억원)으로 기업지원 확대,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2019~2026, 207.5억원)를 통한 에너지 소재 분야 기술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강호축이 수소산업 전 주기에 대한 탄탄한 가치사슬을 구축하면,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뼈대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전북도가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들과 상승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16면 - 무주 금연환경 조성 사업

전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연매출 1억2000만원 이하 대상
매출액 0.8% 최대 50만원까지

전북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라북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확대 운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경영부담 요인으로 꼽고 있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소상공인과 전문가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는 지난 6월부터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3%, 최대 2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도내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여로를 토로하면서 좀 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높은 정책을 요청해 왔다.

이에 전북도는 그동안 도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

고 소상공인협단체 관계자,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좀 더 덜어주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전년도 매출액 1억2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확대한 것이다.

지원신청은 내년 5월까지(자금 소진 시까지) 시군의 경제관련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신청서와 함께 전년도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매출액 증빙서류(포스기 출력물 등), 사업등록증, 통장사본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다. 폐업이나 타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신청한 업체들은 별도 신청없이 소급·지원받을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전국 최대 규모 감사인대회, 군산서 개최

21일 새만금컨벤션센터

LX 류근태 상임감사가 이끄는 한국감사협회가 21일 군산시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19 한국감사인대회'를 개최한다.

'사람이 먼저인 지혜로운 감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40여 개 기관, 800여 명의 감사와 실무 감사인 등 대규모 실무진들이 총집결한다.

특히 이날 대회에서는 청와대 비서실 김겨성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해 부패인식지수(CPI) 세계 20위권 진입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최용범 행정부지사의 환영사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상직 이사장의 기조연설도 마련된다.

또한 건국대 최배근 교수의 '역동하는 국제환경과 기업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강의와 함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방화섭 감사의 감사 성공 사례도 소개될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사회기치실현 대상과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최우수기관대상, 내부감사혁신상, 청백리상, 공로상이 수여된다.

류근태 한국감사협회 회장은 "2020년 국내 개최 예정인 '아시아감사인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세계감사인대회'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의 감사품질을 세계 수준으로 높여 '정렴한국'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 배, 인도 시장 진출

전주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서 출고 기념식
내달 인도 델리 등서 홍보·관측행사 개최

전북도에서 생산된 배가 처음으로 인도 수출길에 오른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전주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조합장 김우철)에서 4000만원 상당의 전북산 배 16톤을 전북 최초로 인도에 수출하는 출고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첫 수출분 전북 배는 12월 초 인도 뭍바이 항구 도착 후 델리, 뭍바이 등 13억 명의 인구를 가진 인도 내 주요 도시 유통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한국산 배의 인도 수출은 지난해 11월 처음 시작되었지만 40%에 이르는 높은 수입 관세와 낮은 한국산 배 인지도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국가로 여겨졌다.

또한, 병충해 방제를 위해 섭씨 0도에서 40일 동안 저온에서 저장 후 수출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전 검역 조건 등 비관세장벽도 큰 걸림돌이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북 배 인도 수출의 성공 뒤에는 전주 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 조래섭 센터장의 노력이 있었다.

조래섭 센터장은 올해 3월 인도

뭍바이에게 샘플을 보내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후 올해 수출한 햇배 중 인도 수출용 배를 위한 별도 저온저장고 마련 등 전북 배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다했다.

인도는 13억 명의 인구나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로 공공 인프라, 민간투자 등이 러시를 이루고 있어 미래에 중국을 위협할만한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최종 타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핵심 국가로 향후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계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농식품 수출 분야에서도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호일 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인도 수출은 인구 13억명의 거대한 수출시장 확보라는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인도 최초 수출을 계기로 인도 시장에서 전북 배 인지도 제고와 소비확대를 위해 12월 중순 인도 현지 유통매장에서 전북 배 홍보·관측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takaoTV
NAVERTV

Do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